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 343 호

금주 법구

큰 도는 그 바탕이 넓고 커서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데
좁은 소견으로 여우같은 의심을 내어
서두르면 더욱 늦어진다.

-신심명-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진천불교어머니회'의 힘

'치마불교' - 여성신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지만 여성의 역할이나 기여도가 미미한 것을 꼬집어 여성차별적 의식으로 폄하할 때 흔히 쓰던 말이다. 이 말에는 사고방식과 신행에 있어 기복에만 매달리고 사회에서 요구받는 역할이나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거의 역할을 못해온 여성불자들에 대한 비아냥도 들어 있다.



물론 지난 90년대부터 여성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여성, 특히 어머니불자들의 신행패턴이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드높다. 이러한 점에서 충북 진천불교어머니회회장 김송자의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을 끌고있다. 10월 27일 창립된 진천어머니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진천불교교양대학 설립이다. 진천에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만한 교양대학이 없다. 기복불교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법을 체계적으로 배워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집중적인 배움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회원들은 회원이 운영하는 학원을 이용해 이달말 교양대학을 열기로 하고 현재 그 준비에 한창이다.

김송자 회장은 "지역 진천어머니회는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김송자 회장은 경로잔치에는 빠짐없이 참석, 봉사해 불교의 효 사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한다. 또 어머니회는 조계종 태고종 등 진천군내 여러 사찰에서 번갈아가며 법회를 보고 있다. 종파를 떠나 진천군내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겠다는 각오다. 김 회장은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불자청소년을 길러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파라미타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한다. 진천군에는 아직 거사회가 없는데 이번 어머니회 창립과 활동에 자극받아 거사회도 머지 않아 창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를 부처님법으로 밝게 만들겠다는 서원에서 불교대학을 설립하고, 미래불자를 위해 청소년 포교에도 역점을 두며 봉사활동도 앞장서서 하겠다는 진천불교어머니회의 활동에서 여성불자들의 진정한 본모습인 자비로움과 자긍심을 볼 수 있다. 더욱 많은 여성들, 특히 어머니불자들이 바른 신행의 귀감을 보여주고 불교중흥의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장 군 죽 비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의 후신 '한국불교 언론', 불법 널리 알리기 위한 '포럼' 결성. (2면)

◇안방으로 부처님 모시는 '불교TV', 경영난 딛고 새 집 마련 첫 삽, 발 닿는 곳마다 부처님 나투게 하기를…. (3면)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지금 당장 불교 복지관으로 가자. 건강한 삶, 즐거운 삶, 오! happy day. (9면)

◇시민들이 국가공원법 제정 추진. 100대 개혁의제 마련. 후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자연환경. (23면)



인도 불교개종식 10만명 운집

4일 인도 뉴델리시 암베드까르회관에서 '로드 붓다 클럽'(Lord Buddha Club) 주최로 열린 '대 개종식'에서는 불자 10만('Times of India' 등 현지언론 5만명 추산)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가촉천민 1만여명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행사는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와 40만명의 개종에 이어 현대 인도불교 제2의 중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현지 종교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인도뉴델리=이지은 통신원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NGO 네트워크' 발족

종교 재정투명화 운동 전개

종교재정 투명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공동대표 박순희), 기독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 김동한)는 5일 명동 천진상 교육관에서 '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종교별 재정운영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재정공개 제도화 촉구, '깨끗한 종교' 디딤돌(맑은 종교인상) 및 걸림돌 선정, 상담 및 고발창구 운영 등 공동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종교NGO네트워크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종교는 종교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신자들의 근시안적인 신앙행위로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종교 바로세우기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단재정의 투명성 확보, 권위적 성직주의 타파,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가부장적이고 반생명적인 종교문화 척결,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단내 제도 개혁, 교단개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경건하고 청빈한 삶 추구, 경제적 빈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 물량주의적 종교시설 건축과 과다 소비성 행사 지양 등 5개 실천강령으로 구성된 '맑은 종교를 위한 경제윤리헌장'도 제정했다. ☞관련기사 2 - 8면

김재경 기자 jaekim@buddhapia.com

해인 · 송광 · 영산 율원 스님 30여명

'비니 법석' 결성

9일 홍제암서 연찬회

조계종의 해인 · 송광 · 영산(파계사) 율원 스님들이 '비니법석(毘尼法席)'을 결성, 수행가풍 확립과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계율정신 보급에 나섰다. 율원연합체인 '비니법석'은 '계율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비니(비나야)'는 '율(律)'을 뜻하는 범어이다.

혜능(해인사) · 지현(송광사) · 철우(파계사) 스님 등 각 율원장을 비롯한 3개 율원 스님 30여명은 9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결성식을 갖고, 이날부터 13일까지 연찬회 형식의 '제1회 비니법석'을 개최했다. 이번 1회 비니법석은 영산율원 율주 종진스님의 '계율정신'에 대한 특강, 동국대 법혜스님과 성본스님의 '선원청규' '초기선종사상사' 에 대한 강의 등 12차례의 율학관련 강의로 진행됐다.

비니법석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정기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해 시대에 맞는 교단 청규를 정립하는 한편, 율학 관련 서적 출판 및 번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계율에 대한 종단의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습의사 양성에도 비중을 두고, 계율을 연구하는 스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율원의 내실도 꾀한다.

율원과 율학 발전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정화에도 나선다. 비니법석은 교구본사 순회 강연회를 통해 불자들을 대상으로 '5계 파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교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환경 캠페인, 탁발을 통한 소외된 이웃돕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니법석은 스스로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사회적인 '모범 집단'으로서의 이미지를 가꾸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계율정신 확산을 위해 계율에 관심 있는 스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은 "율원이 있는 총림의 방장스님과 계단위원 및 원로의원 스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교육원 산하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 - 3 - 24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재 관리 '구멍'

감사원, 문화재청 등 감사
최근 5년간 5665점 도난

감사원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법인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도난된 비지정 문화재가 5665점에 이르지만 국제공항과 국제여객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은 해외 반출이 금지된 동산문화재 9952점, 사찰 유물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4666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사찰 불화 524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보존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8년부터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받아온 129건의 문화재 중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보물 87호), 영천 화남동석불좌상(보물 676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295호) 등 39건은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권형진 기자

"신계사 3층 석탑 신라시대 조성"

조계종 학술조사단 방북

조계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당국의 공식허가를 받아 금강산 신계사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은 2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금강산 신계사지에서 사진촬영과 실측, 탁본 측량, 유물수습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층 석탑이 신라시대(9세기 전후) 조성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학술조사단 지도위원 문명대(동국대교수는 "신계사 3층 석탑의 경우 기단이 깨어지고 6 · 25당시 화재로 손상이 심해 해체 · 복원이 시급하며 건물배치와 탑 기단부의 8부신중과 비천상 조각은 불교미술사와 건축사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현장자료를 정리하고, 문헌조사를 추가하여 2002년 5월까지 〈금강산 신계사 지표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신계사 학술조사단장 학담 스님은 "신계사 학술조사는 북한 문화재 복원작업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며 "지금 상황에서 신계사의 복원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조사가 남북 공동의 목표인 민족문화재 복원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禪속의묵향

석주 · 석정 큰스님 禪서화전

불교TV 에서는
새로운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석주·석정큰스님 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선향으로 "禪 속의 묵향"전을
마련 했습니다.



• 석주스님(참보사 조실)



•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일 시 : 2001.11.14(수)~11.20(화)
■주 최 :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
■후 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원문화재단,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
■장 소: 강평아트센터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구입문의(불교TV사업부)
02-3270-3366~7